



8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8월 이면 더위가 절정에 달하므로 돼지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방서대책으로 혹서기 생산성 저하 요인을 가급적 줄여 주도록 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기본적인 혹서기 관리와 더불어서 여름철 막바지에 특히 문제되는 몇가지 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분포가 고르게 되어야 한다.

3) 사용치 않는 웅돈 및 노령 웅돈의 신속한 갱신(웅돈의 정예화, 즉 10~28개월령으로 보유)

4) 인공수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웅돈의 혹사를 방지하고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웅돈의 수태율 저하를 최소화 한다(적정 웅돈수 확보 → 인공수정시 30 : 1, 자연

교배시 13 : 1)

5) 한 번의 교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재발 및 불임돈의 증가는 교배횟수의 증가로 이어져 웅돈의 무리한 사용을 유발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돈은 다음 교배시 사고돈 교배라는 핸디캡을 안고 가게 된다.)

6) 재발돈, 불임돈 발생시 임신돈 사고원인을 그때 그때 반드시 점검하여 원인파악을 한다.(특정 웅돈에 의한 사고여부를 점검한다)

7) 웅돈에 영양제 및 계란 급여

8) 정액검사

9) 웅돈방 수세 및 소독

10) 표피세척 및 소독

11) 고온으로 인한 승가육 저하 방지를 위해 교배는 가급적 시원한 시간대에 맞추어 실시한다.

1. 더위에 지친 웅돈을 점검하자.

웅돈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약 45일 후에 사정되는 정액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6~7월에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웅돈은 8월경부터 정액의 질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전체 웅돈에 대한 정액검사를 필히 실시해야 하며 또한 웅돈의 무리한 사용을 금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1) 웅돈사용 현황판을 돈사내에 설치하여 교배 시점에서 보유웅돈 전체의 사용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 정기적인 웅돈의 도입으로 웅돈의 연령별

2. 계절적 불임이 다발하는 원인을 이해하자.

6월 22일 하지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는 점차 짧아지게 된다. 이때 돼지는 호르몬의 일종인 멜라토닌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계절적 불임 및 저수태의 생물학적 원인은 빛에 의해 분비되는 이 멜라토닌의 기능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의 설명을 잘 이해 하면 모돈의 하계 불임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1) 혈중 멜라토닌이 높으면 모돈은 임신 유지가 어렵다.

2) 임신돈에서 보통 여름철에 이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진다.(8~9월)

3) 후보돈에서 특히 사료 제한급이를 했을 때 더 많이 분비된다.

4) 제한급이로 인한 멜라토닌의 혈중농도 상승은 여름철에서 초가을까지만 나타나고 일조시간이 짧은 겨울에서 봄철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5) 8월~9월까지는 임신초기(임신 4주령까지)에 제한급이를 했을 때 멜라토닌의 혈중 농도를 촉진하므로 불임이 증가할 수 있다.

〈표1〉 사료급여량에 따른 분만을 변화

급여방법	분 만 울	
	빅토리아주	퀸슬랜드주
제한급이	50%	71%
증량급이	70%	81%

*시험주관 : 호주 시드니 대학 밥 러브 박사
*시험대상 모돈 : 늦어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교배들어간 모돈

즉 이 시기에 불임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신초기 모돈에 충분한 사료를 급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발정자연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장마철이 지나고 한창 무더운 8월에 이르면 이유 모돈 및 후보돈들의 발정이 미약하고 불규칙해진다. 이때 이러한 문제돈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양돈의 증가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과 피해가 커지게 된다.

◎이유후 발정자연돈 관리(예)

- 1주차 : 이유후 스톨사육 : 이유시 비칸틀 주사, 영양제첨가 급여
2주차 : 군사돈방으로 이동 : 웅돈과 접촉, 청초급여, 사료량조절(과비방지)
3주차 : 방모장으로 이동 : 그늘 및 물웅덩이 제공
4주차 : 스톨사육 : 웅돈접촉
5주차 : 도태 또는 호르몬제 사용여부 결정(호르몬제 사용은 수의사와 상담)

4. 문제 모돈의 조기 색출 및 도태

임신진단 및 전산관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공태돈 및 능력저하 모돈을 신속히 찾아내어 모돈 회전을 및 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한다.

5. 돈사의 환기량을 최대한으로 해준다.

특히 직경이 큰 팬을 설치하여 임신사와 비육사의 환기량을 크게 늘려준다. 제습 효과 및 체



적극적인 방서대책으로
혹서기 생산성 저하요인을
가급적 줄여주어야 한다.

감온도 저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탁월하다.

6. 전체 돈군에 충분한 음수를 공급해 준다.

1) 모돈 : 탈진한 모돈은 물먹으려 일어나지 않으므로 특히 분만사 모돈에 강제급수 실시

2) 자돈 : 자돈 전용 닛플 또는 급수기 설치

3) 비육돈 : 비육사에 습식 급이기를 설치한 경우 별도의 닛플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별도의 닛플 설치는 사료섭취량과 관계가 깊다.

7. 임신초기와 말기 모돈 관리가 중요하다.

1) 임신초기 : 교배후 4주 동안에 고온 스트레스를 모돈이 받게 되면 배아의 조기 사망이 증가하여 산자수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초기 유산이 증가하기도 한다.

2) 임신말기 : 임신말기에는 각종 백신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더위에 지친 만삭 모돈에게는 심한 부담을 안겨 준다. 이러한 모돈이 송풍기의 바람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본다. 또한 과비를 방지하며 음부 및 유방이 부을 경우는 즉시 사료를 감량한다.

8. 분만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분만 유도제와 옥시토신의 사용으로 분만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 고온 환경하에서 모돈이 탈진 상태에 있을 때 분만 지속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산 증가 및 분만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분만유도제의 경우 교배기록이 정확히 유지되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곤란하다.

9.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자.

1) 후보돈은 9월까지 일본뇌염 1, 2차 접종

2) 모돈에 대한 기본 백신 프로그램을 철저히 적용한다.

3) 자돈에 호흡기 백신의 접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가을철 환절기 및 겨울철 호흡기질병의 발생률을 줄인다.

10. 소독과 청결한 관리로 고온다습에 의한 유해 세균증식을 최대한 억제한다.

11.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음수소독을 실시한다.

12. 방목, 청초 급여로 인한 기생충 감염 기회가 증가하므로 내외부 구충을 철저히 한다.

13. 일사병, 열사병 예방을 철저히 한다.

- 시원한 시간대에 돼지 이동 및 교배

- 직사광선 차단, 송풍기 및 점적시설 가동을 통한 온습도 조절 등의 환경관리

14. 매일 급수기 또는 닛플 점검, 주 1회 이상 사료 급이조 청소

1) 1일 1회 육성, 비육돈의 사료통 비우기

2) 입질사료통을 청결하게 유지

3) 모돈 사료통에 남은 사료와 찌꺼기를 바로 바로 처리한다.

4) 피드빈에 부패사료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한다.

8월에는 더위가 가장 심한 때이며 이로 인한 피해도 크므로 이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1년의 생산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관리에 임해야 한다. **養豚**